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될 때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부터가 하나의 실전'이라는 말은 백번 맞다. 여기서 이해한다는 것은 무조건 지지나 반대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태의 전말과 이면을 파악한 후 판단한다는 의미다. 요 며칠 사이에 법과 윤리를 초월하는 선민의식으로 충만한 특정 집단들이 자기 우상화(집단이기주의)에 빠져 독점적 기득권을 사수하려 드는, 결코 '일 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방식과 이로 인한 결과적 상황이다.

키를롭스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이마 한가운데에 눈이 하나만 있는 외눈박이 거인이자 식인 괴물이다. 그래서 좌우를 못 보고 정면만 볼 수 있는 이 괴물은 거대한 몸집과 목소리부터

누가 외눈박이들의 소란을 두려워하라!

공포감을 준다. 물론 성격도 좋을 리 없다. 무례하고 오만불손하며 난폭해서, 올림포스산에 사는 신들은 물론이고 신들의 왕이라는 제우스조차도 무시하는 무법자다.

이런 키를롭스에게도 형제와 가족이 있지만, 호메로스에 의하면 공동체 의식과 회의장이나 법 같은 것이 애당초 없으니, 뭐든 마음대로 하면 그것이 곧 법이다. 당연히 키를롭스들은 '제 손으로' 노동하는 일도 없다. 동굴 속에 모여 살면서 제멋대로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먹을 뿐이다. 키를롭스가 의기양양해서 하는 말이 있다. '이봐, 나그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어떤 신도 신경 쓰지 않아. 우리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지. 제우스의 분노가 두려워 내가 그대나 그대의 전우들을 아껴 두는 일은 없어. 내 마음이 그러고 싶다면 모를까.'

키를롭스는 자신이 법이며 절대권력자라고 호통을 친다. 그런데 키를롭스에게서 보는 것은 정작 어리석고 어리석은 외눈박이의 야만성과 파괴적 폭력성이다. 키를롭스의 행태는 오디세이가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꼬박 10년을 바다 위에서 떠돌게 하는 발단이 되지만, 그러나 오디세이는 포기하지 않고 끝내 고향으로 돌

아가는 것에 성공한다.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키를롭스의 특징이다. 이들에게는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들이 무의미하다. 공동체적 윤리와 법, 서로의 의견을 듣는 공론의 장소도 없이 동굴 생활을 하면서 제멋대로 타인을 잡아먹는 야만적인 모습뿐이다. 더구나 애써 몸을 써서 노동하지 않으면서도 과도한 풍요를 누린다.

이 키를롭스의 신화가 우리 시대에 대한 의미심장한 비유로 읽히는 것은 현실 상황과 중첩되는 지점들이 확인하기 때문이다. 키를롭스에게는 자신들에게 이로운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키를롭스는 괴물일 수밖에 없다. 공동체의 윤리도, 법도 없이 자신의 어두운 동굴 깊숙이 갇혀 살면서, 타인에게 한계를 넘어서는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명제는 인간이 '인간'이 되는 절대 조건을 말한다. 사람은 홀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만 서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반면, 공동체

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해관계를 도모하는 사람들끼리 숫자의 힘과 권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은 집단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동체 의식과 집단주의가 서로 다른 지향점을 보여 주는데, 집단주의의 본질은 '키를롭스 콤플렉스'에 의한 시각의 표출이다. 다시 말하면,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보는 외눈의 편향된 시각과 판단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외눈박이 키를롭스에게 두눈박이의 공동체는 불신과 부정의 대상이다.

모두가 예외 없이 두눈박이로 사는 '완전한 세상'에서 사는 것은 어렵지만, 불행한 외눈박이가 되지 않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 이 노력만이 서로를 맹목적으로 외눈박이라고 비난하는 '키를롭스 콤플렉스'를 멈출 수 있다. 이웃도 미래도 없는 어두운 동굴에 사는 외눈박이의 시야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외눈박이의 폭주는 불안감 대신 외눈박이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한 성장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한다. 이러한 성장의 시간이 지금보다 더 절실한 때가 있겠는가.

社說

코로나 감염 차단 마스크만 제대로 써도...

코로나 집단 감염이 지속되자 광주시는 지난 21일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개인 공간이 아닌 경우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한다. 특히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음식물을 먹을 때를 제외하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광주시가 그러한 행정명령을 내린 지 열흘이 지났다. 하지만 광주일보가 잇그제 시내 체육시설과 카페·식당 등을 둘러본 결과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미흡했다. 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은 채 버젓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마스크로 입만 가리고 코는 드러내는 '입스크', 입도 가리지 않고 턱에만 걸치는 '턱스크' 사례가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서구 지역 한 실내 탁구연습장에서는 20여 명의 이용객 모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인근 스크린골프장에서도 마스크를 쓴 고객은 보이지 않았고, 마스크

착용과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알리는 안내문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최근 광주·전남에서는 마스크 없이 대중시설을 이용하는 '노 마스크' 행위가 집단 감염 확산의 뇌관 역할을 하고 있다. 순천에서는 40대 여성이 매일 헬스장을 이용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하루 사이 열네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열혈이 발생한 후 발생한 북구 동광주 탁구클럽 회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파주 스타벅스 야당역점의 경우 방문자 스물일곱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매장에서 일한 직원 네 명은 방역용 마스크를 착용해 감염을 피할 수 있었다. 이들 사례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마스크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 준다.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마스크는 현재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함께 마스크만 제대로 써도 더 이상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의료계 파업 혼란 속 이런 의사들도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말 밤샘 회의 끝에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대전협은 애초 비대위 회의에서 전공의 파업이 계속 여부를 표결한 결과,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으나 재투표를 거쳐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첫 투표 결과대로라면 파업을 중단하는 게 맞지만 단체행동에 대한 결정권을 비대위원장에 위임하기로 결정한 뒤 재투표를 벌여 과반수 동의를 얻은 것이다.

이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다. 이에 앞서 대전협과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등을 원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한다"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기 때문이다. 이 안은 보건복지부와 합의는 아니지만 전체 의료계의 의견을 모았다는 점에서 기대가 컸다.

특히 해당 안에는 정부가 관련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전공의는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의료계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선언도 담겼다. 따라서 대전협이 좀 더 지켜보지 못한 채 이 엄중한 시기에 또다시 단체행동을 계속하기로 한 결정에는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대신해 응급실 당직을 맡으며 여전히 코로나19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이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불안한 전공의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명분'을 떠나 '시기와 방법이 틀렸다'고 비판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파업으로 국민에게 불안감만 주며 실질적인 의료 공백을 가중시키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것이다.

"세상이 아플 땐 의사가 아파야 한다"는 말이 깊은 울림을 준다. 20년 전 의약분업 사태 때 의사들이 파업에 나섰다가 국민의 불신만 초래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꿈꾸는 2040

욕망을 도외시하는 정책



정준호
위민연구원 이사·변호사

철학자 니체는 인간의 욕망을 '푸듯간 앞의 개'로 비유했다. 푸듯간의 고기가 먹고 싶어 개는 호시탐탐 푸듯간 안을 노리지만 푸듯간 주인의 칼이 무서워서 정작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고만 있다. 이러한 모습이 현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닮아 있다는 뜻이다.

모든 사회구성원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싶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한정된 재화의 특성상 보다 더 좋은 집과 환경 등은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만이 차지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쟁 과정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정부 정책 중 대다수를 차지한다. 실제로 '규제'라는 이름의 정책은 푸듯간의 칼처럼

인간의 욕망을 제도적으로 다스리고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정부가 '경쟁'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장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현 정부의 과거 선거 캠페인 중 가장 호응이 높았던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질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라는 말은 '경쟁'을 바라보는 구성원의 시각이 어떠한 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번 정부의 최대 쟁점이 되어버린 부동산 문제 역시 기본적으로 욕망과 경쟁에 관련이 있다.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고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강남 지역에서 살고 싶은 것은 결코 빼놓아진 욕망이 아니다. 다만 한정된 재화인 수도권 주택을 누리는 것에 대한 대가가 크다 면 각자의 여건에서 이 경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비단 강남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전역의 주택 가격이 급상승했고, 전세 제도는 결국 소멸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수도권의 주거 문제는 결혼 및 출산 문

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며칠 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수도권 인구가 최초로 전국인구 수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기준 광주 지역 감소 인구의 95% 상당이 수도권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학교와 일자리를 찾아서 고향을 떠난 젊은이들이 변변한 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쉽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다. 현재 지방 출신의 젊은이들은 본인이 동의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어렵게 구한 일자의 급여 절반 이상을 앞으로 월세로 지출해야 한다는 것에 큰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주변에서 대출과 증여로 무리하게 내 집 장만을 하는 것과 대비해 확실하게 저축을 하고 기다린 대가가 좌절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구성원들은 전혀 모범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주택을 처벌하겠다고 서약하고 공천을 받은 김홍걸 의원은 강남의 주택을 차남에게 증여하고 전월세 인상을 제한을 발의하기 전 시세에 맞게 전세값을 올려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 나부터 수도권 번두리에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면서 주거 문제의 현실을 체감

하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가장 많은 비난이 가는 부분은 "모두가 용이 될 수 없다. 개구리 붐이 가재로 살라도 살기 좋은 개천을 만들자"라는 언행이다. 이상적이고 틀린 단어 하나 없지만 현재 젊은이들은 모두 부모로부터 나보다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착실하게 급여를 저축하라는 말을 듣고 살았다. 당장 보기에 도 개천물이 맑아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 사다리라도 타고 올라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 보겠다는 욕망에 대해 그 사다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이 기다리면 개천물이 맑아질 것이라고 체근하는 모습을 그 누가 공감할 수 있을까.

이제 정부는 폭발 직전인 정서적인 불만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계층 상층을 추구하는 욕망이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달래면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책학은 사회과학의 영역이지 인문학이나 자연과학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고상한 철학도 아닌, 현상에만 대응하는 대중요법적 맹질 처방도 아닌, 구성원의 심리 기제를 잘 파악해 욕망의 물꼬를 유도하는 기법이 필요하다.

2040 광주도시계획 이렇게

비대면 시대, 도시계획 정책의 방향과 과제



정봉현
전남대 지역개발학과 교수

코로나19 팬데믹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 활동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대면 사회에서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면서 도시계획 정책에 전례 없는 경험과 과제를 안겨 주고 있는 것이다.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 증가, 감염병 유행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계획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코로나19는 국내외적으로 인명 피해, 생산 및 매출 감소 등 직접 피해를 가져왔다. 사회적 거리 두기, 재택 근무와 외부 활동 자제는 지역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비대면 사회에 대비하고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 도시계획을 재검토하고 감염병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새로운 도시계획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염병 방역과 치료를 위하여 병

원 및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 의료 시설을 도시계획에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중 이용 시설에 대한 새로운 설치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하고 승용차 통행을 선호하는 경향도 점차 대중교통 노선의 개편과 도로망 계획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상거래의 증가로 택배·배달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화물 운송 계획도 도시계획에서 감안해야 할 것이다. 재택 근무와 자택 거주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 양식이 변화하고 도시 주택과 공동 주택에 대한 선호도도 변할 것이다. 결국, 직장 재택 근무의 확산과 제조업체의 후퇴는 해외 수출을 감소시켜 공황 및 항만 등 사회 기반 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고 사교육 시장이 위축하여 공교육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학원 시설은 감축될 수 있다.

비대면 사회에서 도시는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단기 대책과 더불어 미래의 복합 위기에 대비하는 지속 가능형 도시 회복력을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도시 회복력은 위기로부터 도시의 사회 경제 활동을 보호하고, 피해 후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복구를 유도하여 도시가 정상 사회로 빨리 복원되도록 만

드는 원동력이다.

비대면 시대에 도시계획의 방향은 감염병에 강한 건강 도시, 미래 복합 위기를 타개하는 도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친화적 도시, 지역 경제 활력성이 넘치는 도시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대면 시대의 도시계획의 과제를 다각도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비대면 시대에 도시계획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기본 원칙에 충실한다. 도시계획의 근본적인 시작은 공중 보건 위생과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이러한 원칙에 충실하면서 기술 혁신을 통하여 공중 보건과 환경 보전을 도시 계획 차원에서 적극 수용한다.

둘째, 도시계획에서 생태계를 보전하고 연결하는 생태백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생태백신 네트워크는 생활권 단위로 녹색 인프라를 확충하고 바람길을 조성하며, 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와 높이를 조정하는 것이다.

셋째, 스마트한 감염병 방역 체계를 도시계획에 도입하여 감염 차단 건강 도시를 지향한다. 스마트 감염병 감시 및 역학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대면 시대의 최첨단 방역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스마트 비감염 도시를 구축해야 할 것

이다.

넷째, 비대면 시대의 주거 여건과 기능 변화를 고려한 주거 기준을 마련하여 도시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재택 근무 및 유연 근무제의 증가에 따른 주택 규모와 면적을 검토하여 필수적인 신주거 설비 기준을 마련한다. 취약 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 복지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복지 안전망을 사전에 준비한다.

다섯째, 대중교통 수단의 방역·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공 투자를 확대하고 지능형 스마트 교통 관리계획을 시행한다. 도로 유휴량과 온실 가스 배출 변화를 고려하여 도시 교통망을 개선하고,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을 도입하며 역세권 개발에 직주 근접(職住近接)의 개념을 도입한다. 도시 택배 및 배달 차량 운송망을 검토하여 혁신적 도시 물류 시스템을 도시계획에 반영한다.

여섯째,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감염병 예방과 재난 시설에 대한 다양한 설치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준비한다. 도시에서 전염병 확산을 최소화하도록 평시와 비상시를 구분하여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재난 예방을 위하여 고위험군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기존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보완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광주 양림동 호남신학대학교와 이웃한 야트막한 동산에는 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다. 구한말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광주에 왔던 선교사와 그 가족들 유해가 묻힌 곳이다. 광주 지역 선교(宣敎)의 산파역이었던 유진 벨 선교사를 비롯해 의료 선교를 펼쳤던 오엔, 한생병 환자들의 어머니로 불렸던 세명 등 23명의 선교사들이 잠들어 있다.

19세기 말 양림동은 '풍장터' '여시골' '도깨비골' 등으로 불렸다. 당시만 해도 풍장(風葬)의 풍습이 남아 있어, 광주읍성과 가까운 양림동의 시체를 나무에 걸어 육탈(肉脫)시키는 장례가 성행했다. 이 때문에 시신이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밤이면 날짐승과 여우들의 울음소리가 산자락을 뒤덮었다고 한다.

그런 죽음의 땅 양림동이 최근 근대 문화유산의 보물 창고로 바뀌었다. '광주의 예루살렘'이라는 종교적인 수사를 넘어 가장 뜨거운 문화의 중심지로 변모했다. 선교사들은 기독교 전파 외에도 의료와 봉사, 교육과 나눔을 통해 버려진 땅을 생명의 땅으로 만들었다. 그뿐 아니라 3·1 만세운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가 국권

을 되찾는 데도 일조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일부 교회가 방역 조치 거부 및 대면 예배 강행으로 몰매를 맞고 있다. 광주에서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교인들이 검사를 무루거나 동선을 숨긴 탓에 집단 감염이 늘어났다. 기독교의 본질은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데 있다. 양림동에 들어온 푸른 눈의 이방인들, 그들의 희생이 아름다운 건 자신을 버리고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이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신행일치(言行一致)의 삶으로 보여 준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일부 교회의 물지각한 행태는 기독교가 바이러스 전파의 운상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현장 예배 강행은 죽어 가는 이웃의 고통에는 하등의 관심을 갖지 않는 '율법주의' 신앙으로 보인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교권주의자들 아니었던가. /박성진 문화부부장skypark@

기독교와 생명

<p>光州日報 The Kwangju Ilbo</p> <p>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p> <p>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p> <p>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국문 신형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p>		<p>우이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p>	
<p>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p> <p>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p> <p>정치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p> <p>경제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p> <p>사회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p> <p>전남본부 220-0642</p>		<p>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p> <p><FAX 222-8005> <FAX 222-0195></p> <p>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p> <p><FAX 222-0195> <FAX 222-0195></p> <p>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p> <p><FAX 02-773-9335></p> <p>*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p>	
<p>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